

## 윤구병 <함과 됨>

제5강 - 농경공동체와 유목공동체  
(1교시)

### ◆ 농경공동체 지혜의 함수: 시간

제가 이 이야기를 소설 쓰고 있고, 허투루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 아름답고 젊은 여자 분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작업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하하하~ 그런데 그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조상들은 그 과정 중에서 멀리멀리 어디론가 사라졌고 현재 우리 조상님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종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웃사촌인 오랑우탄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우탄과 마지막 후에일지도 모르니까~ 오랑우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여자입니다. 루이스 리키, 그 아내인 마리 리키, 그 아들인 리차드 리키, 이 사람이 고고인류학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루이스 리키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습니다. 올드바이 계곡에서 아내와 같이 해골을 파다보면 지겨워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자들이 끈질기게 잘합니다. 나중에 '나는 이 작업에 필요한 돈 모아 올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모아 아내에게 가져다주는데 양식 값보다 마리 리키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술값이 더 듭니다. (일동웃음) 루이스 리키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현생 인류가 어떤 연속적인 고리를 통해 진화해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들을 연구해야 한다.' 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을 연구시키는데, 가장 격렬한 여자인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다이앤 포시를 시켜서 마운틴 고릴라를 연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상한 영국 출신인 제인 구달은 침팬지를 연구하도록 하고 선대가 비루테 갈디카스라는 여자는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글지역 쪽으로 보내서 오랑우탄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남자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세 여자가 유인원 연구원에서는 세계 제일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랑우탄을 연구한 비루테 갈디카스는 실제로 사진 기자였던 첫 남편과 이혼하고, 그 지역 주민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 마을의 널널하고 인심 좋은 아내로 살면서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오랑우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연구 성과라고 본 것은 20년쯤 되고 그 후로는 추적을 못해서 모르는데 수컷 오랑우탄의 생애는 20년 전 현재로서 오리무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암컷 오랑우탄의 생애를 연구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계속 발표해 왔는데 오랑우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컷들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랑우탄 암컷이 일생 동안 새끼를 몇이나 낳는 거 같아요? (학생曰: 10마리요, 50마리.)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많이 낳을수록 더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오랑우탄이 좀 더 원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낳는 오랑우탄이 일생동안 세 마리를 낳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생曰: 몇 년을 사는데요?) 대개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삽니다. 오랑우탄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한테 나무꼭대기에서다가 집 짓는 법,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는 법을 포함해서 먹이를 찾

고, 나무 타고 내리는 것, 그리고 오랑우탄이 새끼한테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가르치는데 칠 년이 걸립니다. 400가지 정도의 먹을 것을 새끼에게 가르쳐줘서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먹을 것 백 가지만 제대로 가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만만치 않죠? 우리 공동체 애들은 아주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새우깡, 고구마깡, 양파깡. (일동 웃음.) 하여튼 철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인 한은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 힘을 길러주는 데 오랑우탄은 칠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건사하기 힘들고 엄마가 죽기도 하고 혹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암컷끼리 연대를 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보면 공동체 가운데서 농경공동체는 두 뒷발로 몸 전체를 유지해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먹고살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서 애를 낳아야 하고 갓난애를 길러야하고... 여자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영역이 개척되었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생산지가 만들어져왔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애를 낳을 때나 갓난애를 안고 젖을 먹일 때는 속수무책이잖아요. 도울 수 있는 수컷은 사냥하러 간다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이웃여자에게 같이 도움을 받아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꽤 그럴듯하죠? 아무튼 소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우리 조상들로부터의 사가, 전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공동체는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동체는 유목 공동체가 아니라 농경 공동체였다. 여러분들은 유목공동체가 먼저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경 공동체는 여성 중심의 공동체이고 실제로 지금 농경 공동체에서는 위계질서가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권위를 더 갖게 되고 늦게 태어난 사람은 꿈쩍 못하게 되는 서열화 된 사회라고 보기 쉽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서 장로 중심의 규범이 딱 정해져 있고 이런 점에서는 실제로 나이 어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생각,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도 어른들의 억지에 꿈쩍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경 공동체는 그 나름대로 엄격하게 평등성이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다만 그것을 공식적인 측면에서 평등성 확보를 생각하느냐, 통시적인 측면에서 평등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사회라는 것은 어느 연령대 이상이 되면 모든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바보가 되었든 미친 사람이 되었든 그 한 장의 표를 행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농경 공동체는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껍! 하면 모두 죽여주십시오 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마을이 옛날 농경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우주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서 죽고, 뒷산에 묻힙니다. 한 백 년 전 까지도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다만 여자는 한번 거주지를 옮기죠. 옛날에는 남자가

장가를 들어서 거주지를 옮겼는데 지금은 여자가 시집을 가서 거주지를 한번 옮깁니다. 그런데 여자도 거의 마찬가지로 그 울타리 내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도 가부장 제도가 되면서 여자에 대한 천대가 얼마나 심하게 됩니까? 모계사회라는 것이 좋은 게 여자가 딱 버티고 있고 남자가 오던 사회인데, 부계사회가 되고 여자가 삶터를 옮기게 되면서 고초 당초보다도 더 매운 시집살이 노래가 끊임없이 오천 년 동안 불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보십시오. 농경공동체에서는 공간적인 경험의 확장이 지혜의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마을로 가봐야 똑같은 방식으로 농기구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가봐야 다른 삶의 형태가 꾸려져 있고 그래야 거기에 대해 일깨움을 얻고 눈을 뜨게 되는데,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오래오래 그 마을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은 사람, 가뭄이 되었던 큰물이 되었던 그 밖의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풍요관계를 결정짓는 날씨에 관한 정보 등 노인이 최고입니다. 하다못해 늙으면 관절에 중풍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비가 오려면 쭈셔요. 일기예보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니 자연히 노인네들에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 있을 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면 대체로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노인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슬기로워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시간의 함수가 되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 슬기로워 지니까 규범적인 윤리가 확립이 되죠. 웃어른이 하신 말씀 틀리는 게 없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른들이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확립해놓은 윤리관이니까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 다 삶의 경험이 응결돼서 이렇게 우리 잘되라고, 잘 살라고 윤리 도덕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 해서 규범 윤리가 거기서 확인이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재론 상고주의적인 역사관, 우리는 거꾸로 근대 원시사회에서 야만 원시사회까지 와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실제로는 문명화되고 더 개명된 좋은 세상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농경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불교에서도 그것이 반영돼 있고, 여러 가치관 속에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속에 반영이 돼있는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법시대가 있었고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마다 옳았던 시대가 있고 임기응변이 생겨난 상법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말법시대라고 하죠. 도대체 혼란하기 그지없는 세계라 보고 실제로 유교에서도 과거 요순시대가 제일 좋았다. 이제 과거로 자꾸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버레이지, 코퍼레이지를 거쳐서 지금은 스틸레이지인 철기시대. 제일 인간 가운데 말종들만 살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죠. 이것들이 고유하고 독특한 농경민의 사유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옛날이 좋았다, 그리고 노인네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도 더 슬기롭고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가 더 슬기로운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더 슬기로웠을까? 그렇게 자꾸 유추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점점 종말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자에 대한 장례, 애도의 뜻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제사, 죽은 분들을 추모하는 제사가 관혼상제 가운데서 제사가 제일 으뜸이고, 그 다음에 장사, 그다음에 혼례, 그다음에 관례, 이렇게 차례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에서 규범윤리가 지배를 하고 역사주의에서는 상고주의가 그리고 계절이 순환 하듯이 모든 것이 순환하는... 그리고 역사관은 순환사관, 진보사관 이런 거 없이 모든 것이 되풀이 된다 하는... 한 해가 가면 또 계절이 되풀이되듯이 달이 차면 기울 듯이 모든 것이 되풀이 된다.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해와 달같이 순환하는 것들이 시간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평등의식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노인네들 죽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노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조건 존경 받잖아요. 그리고 젊은 것들이 와서 의논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측면에서 나눠놓고 보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지만 통시적으로 순환하는 세대를 놓고 보면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실제로는 평등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윤구병 <합과 됨>

### 제5강 - 농경공동체와 유목공동체 (2교시)

#### ◆ 유목공동체 지혜의 함수: 공간

저희가 농경공동체의 특유한 관혼상제에서부터 가치관, 역사관, 그리고 사물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틀, 이런 거 하나하나 짚어보면 재미있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라 그럴 때, 서구 언어로는 culture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하는데, 그것의 동일한 것은 워낙 라틴어 cultus 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일어나 불어나 영어나 같습니다. 그런데 cultus는 워낙 라틴어 colo에서 나온 과거분사인데, colo라는 말은 논이나 밭을 간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파생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민들 사이에서 최초로 문화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계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브의 계열은 카인을 통해서 정착민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며 농사를 짓고, 아담의 계열은 아벨을 통해서 유목민으로 집하를 이루어서 독특한 삶의 길을 걷게 되는데, 처음부터 유목민은 아니었던 걸로 미루어 판단을 합니다. 유목민들이 주로 활약했었던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조상들도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낙인으로 찍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실제로는 몽고가 우리 조상이고, 거기서부터 한반도로 말 타고 이주해 왔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게 되는데, 몽고 다음에 아라비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이런 고대문명, 히타이트 문명이 있었던 곳들, 이런 곳들의 공통치가 나오는데 그 공통치가 무엇입니까? 지질학적인 공동체? (학생曰: 사막이요.) 그렇지, 사막. 그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사막이었다면 들어가서 살지 못했겠죠? 초원에서 사막으로 점점 바뀌었겠죠.

초원은 사실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 목초지가 점점 사막으로 바뀌는... 비가내리지 않고 풀이 메마르고 하면서 사막으로 바뀌는 기간들이 지속되어 왔겠죠. 그런데 유목민들은 어떡해야 합니까? 봄, 여름, 가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이동을 통해서 상시적인 한 철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풀이 자라는 지역이다, 그러면 짐승들 풀을 뜯기다가... 거꾸로 해봅시다. 저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말이나 소를 기르는 한라산 제주도 주민들이 그렇듯이 맨 위쪽으로 갔다가 가을이 와서 점점 풀이 말라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위도를 오르내리면서 목축을 하는 짐승들에게 가장 알맞은 먹이가 제공되는 지역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목초지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죠?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여기서는 목초지를 찾아다니고 짐승들을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해서 남들보다 먼저 목초지를 차지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말이나 낙타를 길들이는 걸로 나타나죠. 그런데 말이나 낙타는 여자들이 길들이기 쉬운 짐승이에요? 여자들이 길들이기 힘든 짐승들입니다. 일정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길들일 수 있는 짐승입니다. 소나 돼지나 개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길들일 수 있지만 말이나 낙타 같은 것은 쉽사리 길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일정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들이 길들이기 알맞은 짐승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발이 빠리지는 거죠. 빨라진 발로 발 빠른 짐승들을 몰고 다니면서 실제로 살 무기를 해결을 하는데, 농경공동체가 여성 중심의 불평등 사회였다면 이 유목사회는 남성 위주의 불평등 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짐승을 길들이는 것에서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목초지가 줄어들고 서로 알맞은 목초지를 찾으러 가는 중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목초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짐승 데리고 겨우 찾아갔는데... 다른 데로 가는 중간에 짐승들 대다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실제로는 굶주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판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판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투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쌓아야 강인한 체력, 정신력을 갖출 수 있죠.

그러니까 농경민은 우리 나이로 열여섯이면 관례를 행하게 되고, 어른이 됐다 해서 시집 장가를 보내게 되는데, 농경민의 관례라는 것도 단순합니다. 이를테면 마을 나무 밑에 들돌이 있어서 누가 그것을 번쩍 들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세다, 소 잘 몰겠다, 일 잘 하겠다, 이렇게 관대하게 구하면 되는데, 유목민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야 하고 거기서 강인한 체력을 발휘해야 하고 적에게 붙들려도 굴복하지 말아야 하니까 관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떤 부족에 따라서는 자갈들을 불에 달궈놓고 거길 지나가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가슴에다가 꼬챙이를 꽂아서 24시간이나 48시간을 견디게 하기도 하고, 높은 눈 덮인 산에 가서 며칠 동안 견디고 오라고 하기도 해서 사정없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훈련해냅니다. 그러면 농경민 사회에서는 공간적인 경험의 확장이 지혜의 함수가 되지 못하고 시간을 통한 경험의 축적이 지혜의 함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유목민의 경우에는 공간적인 확장이 지혜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력으로나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방에 여기저기 돌아다닌 사람이나 맞닥뜨리는 사람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북구 신화에 보면 바다를 목축지로 삼아서 해매고 다니는 약탈자 무리로서 더 유명하지만 오딘 신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눈 하나를 자기가 빼서 신에게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싸우다가 눈알이 빠진 거죠. (일동 웃음.) 그걸 신화화하니까 눈알을 바치고 지혜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청장년을 중심으로 사회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인들이나 여자나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려장은 워낙 농경민들의 풍습이 아니고 유목민들의 풍습입니다. 어느 정도 체력이 바닥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빨리 움직여야 하는 유목공동체에서 이걸 짐이 될 뿐이죠. 그래서

버리고 가요. 여러분들, 바렌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에스키모 부족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그걸 보면,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를 아들이 버리고 가는데, 그 할머니는 저기서 흰 곰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꿈속에서 그런 상상을 하죠. 저 흰곰이 곧 와서 나를 잡아먹을 텐데 그러면 내 영혼은 흰곰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내 자식이나 혹은 손자가 저 흰곰을 잡아먹을 때 다시 자식 혹은 내 핏줄과 한 몸이 된다는 그런 꿈을 꾸죠. 그래서 죽음을 아주 평온한 기분으로 맞이하죠. 버리고 가는 사람이나 버림받은 사람이나 비정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삶에서 가장 슬기로운 선택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윤리가 규범적이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꼭 저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윤리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할까요? (학생曰: 아니요) 아니죠. 부딪히는 상황마다 유동적인데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라는 상황윤리가 지배된 곳이다. 그리고 강자의 논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강한 자들을 숭배해야 한다고 하고, 재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농경공동체에서는 이 실제로 생산되는 것이 전부 유기물이고 일 년 이상 놓으면 다 썩고, 해마다 씨를 뿌려야 거기서 싹이 트고 이 년만 묵혀버려도 거기서 싹이 트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뿌릴 씨종자를 내버려두고는 전부 나눕니다. 떡을 해 먹기도 하고 거지나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주고 나눠 주는 형태는 저마다 다르겠죠. 그 형태도 아주 고약하게 바뀌기는 합나다만, 어쨌든 다 나누죠.

그런데 실제로 유목민의 경우에도 나눔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굉장히 너그러운데, 왜 너그러우냐면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니까, 양이라든지 기르는 짐승들은 전부 유동자산이죠. 농경민들은 집이나 논밭이나 전부 고정 자산인데, 이건 유동자산입니다. 곧 버리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고정 자산에 관한 개념이 없으니까 마구 나눠 줘버리고 대부분이 떼 지어 가서 조그만 약점이 있다 하면 가서 때려 부수고 물건이나 짐승, 여자를 약탈해 와서 나눕니다. 농경민들은 나눠도 밥 한 그릇이거든요. 더 먹어봐야 배탈만 나죠. 유목민들이 탈취해 온 것들은 비교적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와서 분배를 하는데 고루 나누진 않죠. 약탈하는 데 앞장선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실제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초지는 줄어들고 생존경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싸워서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문화를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르죠. 농경민 사회는 정착지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들이 다양하게 발달을 하죠. 벽에 걸어놓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시골사람들 집안에 민화를 걸어놓고 혁필화 같은 걸로 이름도 써놓고 낙화나 가구 같은 여러 가지 손재주의 사물들을 여기저기 남기게 되고, 청승맞은 시집살이 노래에서부터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 풍물치고 놀 때 부르는 노래 등 여러 가지 노래들이 생겨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릎에 앉히고 옛날이야기 등 문화유산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유목민들도 없진 않지만 기억 속에 간직되고 입에서 입으로 몸에서 몸으로 전승되는 것밖에 따로 간수해 뒀다 하

는 문화는 많지 않고 지극히 한정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악기를 개발한다 할 때 어떤 악기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까? 전쟁을 부추기는 심장소리와 비슷한 타악기나 뿔피리 같은 것이나 현악기 같은 것이 발달할 리가 없죠. 이렇게 유목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관, 역사관, 그리고 사회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규정들이 농경민들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막이 진행이 되면서 목초지를 여기저기 찾아 해매고 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 일부는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막 길을 가로질러서 서로 부족한 물건을 바꾸는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점점 머리를 쓸 일들이 늘어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번갈아 드는 온대지방에 살면서 사람도 짐승도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식물들도 머리가 좋아지죠. 식물들도 겨울에 겨울눈을 마련해서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완전히 벌거벗어야 살아남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다람쥐나 개미, 이런 온대지방에서 움아온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거나 도토리 같은 알을 모아서 저장해 놓고 사는 삶의 양식을 새로 배운다든가... 사람들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먹을 것이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다 보니 그릇을 만들게 되고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벌레가 뚫지 못하도록 하는 항아리나 단지 같은 것을 빚는 그런 기술들을 생각해내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의 경우에 농경민들만큼 머리가 복잡해질까 아니면 더 단순해질까? 농경민들은 저마다 철이 들어야 하고, 한마을 공동체에서 자급자족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을 보면 도시에서 와가지고 처음으로 농사짓는 법을 익히게 되는데 한 십여 년 지나면 살아남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백여 가지 정도 익힙니다. 우선 콩도 이십 종류 가까운 것들을 언제 심고 언제 걷어야 하는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담는 것, 집짓는 것, 하우스 놓는 것, 지게 만드는 것, 등 백여 가지 이상의 삶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목민 터프가이들은 대단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자!’ 하면 ‘예, 따르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도 됩니다. 도시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시골사람들은 손이 닳는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시골이 굉장히 단순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인간이 자연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박하고 단순하고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사람들이 텔레비전 안 봐도 너끈히 지내는 게, 늘 할 이야기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농사짓고 사는데, 제가 보면 도시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심드렁하고 입을 열려고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들어봐야 똑같은 이야기여서 생각이 닳아가니까 들으나 마나다,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시골사람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새롭기 때문에 늘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도시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 매일 하다 보니 서로 지겨워서 입 닫고 사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도시사람들 일반을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동 웃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단순한 사회가 되고 한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의 판단이 지배적



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그 사회구조의 불평등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 사회에서 최초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는 불평등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나 나이를 들면 노인이 되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확보가 되는데 유목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혼상제에서의 관례가 유목사회에서는 가장 중요시되고 농경사회에서는 제사가 중요시됐다. 이것은 성인식이 유목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나이가 드느냐, 안 드느냐는 상관없이 누가 우리 부족들을 곤경에서 빠져 나와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데 앞장서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의 운명이 그 사람에게 맡겨지죠. 이런 과정 속에서 생활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기서 제 이야기는 끝이고 질문을 받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제 몽상인지 망상인지 소설인지 하는 것 가운데서의 이야기는 도시사회가 제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기르는 문화와 만드는 문화, 지속과 변화의 변증법, 이것도 곁들여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학생: 농경사회에서도 불평등은 생기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를 들어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학생: 지주와 소작 같은 것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요~

교수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서양에서는 아키티푸스라는 것인데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계급사회가 나타나면서 원시 공동체에서부터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그리고 지금 근·현대사회로 바뀌어 오는 동안에 그것을 나누는 데는 단순한 게 없습니다. 복합적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초적인 현대 아키티푸스라는 거죠. 나중에 계급관계의 억압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할 것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농경사회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윤리적으로 고정윤리다, 그리고 유목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것보다는 악착같이 매달린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상황윤리라고 보고 굉장히 유동적이라던가... 그래서 고정윤리를 끌어내는 논리를 따지면 맞는데, 고정윤리까지 가면 다시 느낌이 안정화되고 안착화되고 거꾸로 상황윤리 속에서는 권력자가 안정화가 안 되고 다음 힘센 놈이 올라서니까 어찌 보면 계급사회는 잘 안 맞아 보여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다 맞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급사회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보면 약간 충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수님: 예,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뒤로 좀 돌렸는데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사이를 이야기하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로 큰 틀에서 보면 생명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인간 사회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같은 것을 전체로 봐서 생명의 태두리 속에 들어 있는데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시간의 구매, 자연의 시간이란 것은 대체로 달과 별 같은 천체의 순환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농경민처럼 거기에 인간이 따라서 사는 자연의 시간 속에 매몰됐다고 해야 할까? 순응한다고 해야 할까? 거기서 사는 농경민들하고, 유목민만 되더라도 자연의 시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측면이죠. 끊임없이 인간의 시간, 인간의 삶을 위해서 철의 구매를 받지 않고 항구적인 봄철이나 여름철을 나름대로 만들려고 애쓰고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를 극복하는 측면이 있어서 인간의 시간이 실제로 확보되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자연에 대한

통제력이 그만큼 커지는 측면이 있고, 자연의 시간 속에서 농경민들은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는 측면이 큰 측면이고, 이 측면의 시간과 공간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좋은 질문인데 여기에서 다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유목민들이 드디어 철이 들거나 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철들지 않고, 철 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찾는 것에 앞장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자연 원형으로서 농경공동체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인간의 시간으로서 역사와는 다소 대비되는 역사라는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농경민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은 순환사관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니체식으로 한다면 영원회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농경민의 의식 속에 짝 들어차 있는 측면이 있지요.